

NO.47

# 박물관 문화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식지

2025 봄·여름호

Ewha Womans University Museum Culture  
Spring / Summer 2025

## 전시 소식

이화 창립 139주년 · 박물관 개관 90주년 기념 특별전  
《옷츠, 시간을 입다》

## 외부 지원 사업 소식

2025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사업

2025 「매장문화재 미정리 유물 보존 및 활용 학술연구」 6차년도 사업 수행  
2024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 이화여대박물관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 개시

## 교육 및 신간 · 아트샵 소식

담인복식미술관 특별전 《금상첨화<sup>錦上添花</sup>, 금박》 연계 체험 교육프로그램  
이화 창립 139주년 · 박물관 개관 90주년 기념 특별전 《옷츠, 시간을 입다》 도록 출간  
2025 아트샵 소식

## 기증소식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Email. museum@ewha.ac.kr Tel. 02-3277-3152 Fax. 02-3277-3153

## 이화 창립 139주년 · 박물관 개관 90주년 기념 특별전 《 옷차, 시간을 입다 》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관장 장남원)은 이화 창립 139주년 · 박물관 창립 90주년을 기념하여 5월 28일(수)부터 11월 28일(금)까지 박물관 2층 기획전시관에서 《옷차, 시간을 입다》 특별전을 개최한다. 본관은 이 전시에서 조선 전기 출토 복식부터 근·현대 한복까지 200여 점에 달하는 다양한 복식 유물을 공개한다. 우리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옷’을 개인의 삶과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문화적 언어로 바라보고, 관람객들이 시대별 복식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깊이 있게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동다리同多里> 조선 19세기, 견  
길이. 133.5cm, 화장. 97cm

‘비단으로 지은 옷’을 테마로 한 1~2실에서는 흥선대원군(1820-1898)이 예복으로 착용했다고 전해지는 ‘청초중단’을 비롯해, 신정왕후(1808-1890)가 친정에 하사한 원삼과 스란 옷치마 등 왕실과 반가에서 착용한 비단 옷을 두루 선보인다. 3실, ‘마와 면으로 지은 옷’에서는 시원한 소재로 여름에 애용된 모시 적삼과 두루마기 등이 전시되었다. 층층이 다른 색으로 곱게 물들여 만들고 속옷 위에 덧입어, 치마의 형태를 더욱 풍성하게 했던 무지기 치마와 대숨 치마도 볼 수 있다. 4실, ‘변화, 새로운 아름다움’에서는 1950년대 수입 원단과 합성 섬유의 보급, 염색과 제직 기술의 발달로 과감하고 화려한 감각이 가미된 한복의 또 다른 아름다움을 확인할 수 있다. 5실에서는 1940-60년대 영화와 여러 자료를 통해 한복을 일상으로 입었던 세대의 모습을 편집한 영화와 영상을 감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화 캠퍼스를 배경으로 전통 복식을 착용한 나의 모습을

일러스트 이미지로 소장할 수 있는 AI 복식체험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전통 복식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새롭게 발견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 바란다.







## 《옷차, 시간을 입다》 신간도록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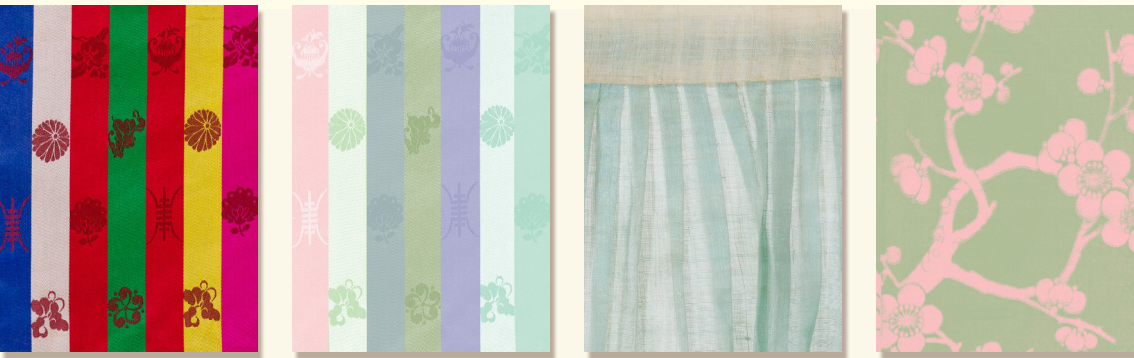
이화 창립 139주년·박물관 개관 90주년 기념 특별전 《옷차, 시간을 입다》의 전시 도록이 새롭게 출간되었다. 이번 도록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한국복식사 과목을 개설했던 가정과학대학에서 수집한 복식 유물과 소중한 기증을 바탕으로 박물관이 소장하게 된 전통 복식 가운데 대표적인 유물 130여 점을 수록하였다. 조선에서 근대에 이르는 전통 복식과 소품을 통해 우리 옷의 다양한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

## 2025 아트샵 소식

박물관 아트샵에서는 특별전 《옷차, 시간을 입다》와 연계하여 새롭게 개발한 자체개발상품과 작가작품 등을 선보인다. 패브릭 토트백은 침선장들이 사용하는 고급 양단과 50-60년대 한복감으로 유행했던 목수 레이스 등의 옷감을 활용하여 가볍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한복 노트는 현재 전시되고 있는 한복의 문양을 모티브로 표지를, 이화문양으로 내지를 장식해 학교와 박물관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기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책갈피, 팔찌, 브로치 등의 매듭제품들, 강릉지역에서 안전과 복을 기원하며 만들어 사용했던 강릉주머니 등 작가 작품들도 함께 판매되고 있다.



패브릭 토트백 26×22cm



한복 노트 20×15cm

## 담인복식미술관 특별전 《금상첨화錦上添花, 금박》 연계 체험교육프로그램 <나만의 금박 에코백 만들기>, <나만의 금박 장식함 만들기>

박물관에서는 2025년 3월, 4월, 6월 문화가 있는 수요일에 담인복식 미술관 《금상첨화, 금박》과 연계하여 <나만의 금박 에코백 만들기>, <나만의 금박 장식함 만들기>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박물관 학예연구원의 설명과 함께 《금상첨화, 금박》전시를 관람하며 조선시대 전통 기법부터 현대화된 금박까지 살펴보았다. 이후 다양한 문양을 조합하며, 나만의 금박 가방과 금박 장식함을 만들어보며 조선 후기에 발전한 공예 기법인 금박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 기증소식



<서안> 높이 31cm

김명 명예 교수(본교 보건관리학과)는 19세기에 제작된 서안 1건 1점을 기증했다. 이 서안은 양 측면 중앙에 여의두 무늬를 투각하여 장식하였고, 단아한 형태를 보여준다. 상판 하단에 책을 둘 수 있는 빈 공간이 있고, 그 아래에 소품을 넣을 수 있는 서랍이 마련되어 있다.



<백자 모란문 병> 높이 14.5cm

<유혜> 길이 25.5cm

김영신 동문(본교 의류직물학과 70년 졸업)은 시어머니께서 신으셨던 유혜와 시아버지께서 사용하셨던 백자 모란문 병 등 2건 3점을 본교 박물관에 기증했다. 비울 때 신을 수 있도록 기름 먹인 가죽으로 만든 유혜 안에 노끈으로 만든 신골이 들어 있다.



본교 평생교육원에서 문화예술 분야를 수강 중인 안정란 선생님은 벨벳 및 충무 누비로 만든 저고리와 치마 등 2건 4점을 기증했다. 선생님께서는 지난 2019-20년에도 모친께서 물려주신 옷감 등 복식 유물 10건 17점을 기증한 바 있다.

<벨벳 저고리·치마>

치마길이 121cm, 화장 68.2cm



<삼베> 폭 36cm

김준호 금성테크 대표는 수의용 삼베 1건 1점을 본교 박물관에 기증했다. 이 삼베는 모친 박정자(1931년생)님께서 직접 삼씨를 심고 줄기를 베어 만든 삼실로, 1년 가까이 뜸날 때마다 베틀로 짠 것으로 모친의 정성이 깃든 유물이다.